

“For the Next Generation”
“차세대를 위하여”
(신명기 Deuteronomy 31:1-8)

When we say next generation, what comes into your mind? Who comes into your mind? Some may think of our own children. Some may think of our friends. Some may think of our grandchildren. Some may think of ourselves if you are young. In today's age, what sort of feeling comes with that word? Some may say energy. Some may say youthfulness. Some may say stupidity. Some may be envious. What kind of feelings do you have when you think about the next generation? Some may feel hopeful, some may feel proud. Some may feel like they have failed, hopelessness, a group that is unappreciative. ‘차세대’ 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생각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친구를 생각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손자 손녀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자기 자신을 생각 할 수도 있겠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단어는 어떤 느낌을 주나요? 어떤 분들은 에너지라고 하실 수 있겠고, 어떤 분들은 젊음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리석음이라고 하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질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차세대’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희망적인 느낌, 어떤 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들이 실패했다고 느낄 수도 있고, 또 절망적이라고 느끼거나, 그들이 감사할 줄 모르는 그룹이라고 생각 하실 수도 있습니다.

Who is at fault in how we feel about our next generation? Who do we blame? Are we avoiding this issue, are we depressed about it, are we trying to quick fix it, or are we admitting failure and that we are in need of help? 우리가 차세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 감정들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탓해야 할까요? 이 문제를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이 문제를 대충 해결하려고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 이미 실패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Who do we turn to? Who do we ask for help?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할까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까?

As I am a Korean American born in the U.S., who has experiences of my own and have heard many more different stories of immigrant families, nothing breaks my heart more to hear that our brothers and sisters, many of our children have left the church; for this reason I am still in, and still feel strongly called to the Korean American church.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으로서 많은 일들을 경험했고 이민 가정들이 겪는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었지만, 무엇보다도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아직도 Korean American 교회에 남아있고 아직도 강한 부르심을 느끼고 있는 이유입니다.

On top of that, I hear the adults and parents saying they came into this country for their children and sacrificed everything to come here. And what further saddens my heart, is that though they came here and their children got a great education, great wealth, and many more blessings, due to differences in culture, they lost the language and the cultural channel to simply say “I love you” and mean it. They wished their children would know and love God, though they say they came here for their children, and though now many families might live comfortably, they lost

the very heart and words to say “I love you”, and feel they have lost their children to a new culture, a new time and age that brought differences into the generations.

많은 어른들이나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이 나라에 왔고 그것 때문에 모든것을 희생했다고 얘기합니다. 더 가슴이 아픈 것은 자녀들의 더 좋은 교육과 더 큰 축복을 위해 이 나라에 왔지만, 문화와 언어의 차이 때문에 사랑한다는 표현과 사랑한다는 느낌을 주지 못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새로운 문화와 시대에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일도 보게 됩니다.

Who do we turn to? What can we do for the next generation?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할까요? 우리는 차세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Moses, as we know in the Bible, is a famous figure in the Jewish culture. If there are three important characters that you need to know in the Old Testament, it would be Abraham, Father of Israel; David, King of Israel; and the third would be Moses; the Law of Israel. As he was adopted into royalty he grew up in great amount of wealth but due to his true identity he came down to his people and became the man who was the leader of the Exodus who freed the Israelites, the one through whom God delivered His people from Egyptian slavery.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것 처럼 모세는 유대 문화에서 유명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알아야 할 중요한 세 사람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왕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의 율법의 아버지 모세일 것입니다. 왕실에 입양되면서 모세는 대단한 축복을 누리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신분 때문에 왕족의 자리에서 내려와 자신의 백성에게로 가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해내셨습니다.

He met God face to face up on the Mountain of Sinai, and God entrusted the Law through Moses. He showed the miraculous powers of God, spoke truth to those who were still away from God, and he basically created the structure of God's people. Even in the New Testament, one of the prophets Jesus meets is Moses, who demonstrated that Moses foreshadows Jesus' work as Messiah. Hebrews talk about his faith. God Himself buried Moses and “since then, no prophet has risen in Israel like Moses, whom the Lord knew face to face. For no one has ever shown the mighty power or performed the awesome deeds that Moses did in the sight of all Israel.” 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기적들을 보여주었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본적인 틀을 만든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난 선지자 중 하나가 모세였으며, 그 이유는 모세가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의 믿음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땅에 묻으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로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모세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서는 그를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과 신기한 일을 하게 하셨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없다.”

But what many fail to see is his humility, his sacrifice, his obedience, and the hope of how he played a huge role for the next generation. If you see how he led his ministry and his people during his time, you would see he had poured his blessing for the next generation.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겸손함, 희생, 순종, 그리고 그가 차세대를 위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살펴보면 그가 차세대를 위해 얼마나 많은 축복을 쏟아 부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Moses was someone who tasted the riches of this world. He was someone who grew up as a prince and lived the life that man would dream of and think it was the best life. For someone who tasted that, it took a lot of humility for Moses to step out of and come down to a life of slavery.

모세는 세상의 축복을 맛 본 사람입니다. 그는 왕자로 자랐으며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가장 좋은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 모든 좋은 것을 버리고 노예로 살기를 결심했을 때, 모세는 아주 큰 손해를 보기로 결심해야 했습니다.

In Exodus 3:1-6, when Moses encounters the burning bush, he is told to take off his shoes, humbled before God. 출애굽기 3 장 1-6 절에 보면 모세가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말하십니다.

A famous pastor encouraged people to look into the questions God asks us in the Bible. God asks Moses, "what is in your hand?" We sometimes just read it and just assume God is asking it, but we should ask ourselves, if God is all knowing, why would He ask this? Does He not know? Usually when God asks questions, He knows the answer, so it is actually for us, the humans, because we don't know and God is getting us to question and think about it. This is actually a great counseling skill.

어느 한 유명한 목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나?" 고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읽을 때 그냥 대충 하나님이 물어보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데 왜 물어보셨을까? 하나님은 모르고 계신가요? 보통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는 이미 답을 알고 계십니다. 이 질문은 우리 인간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모르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알게 하시기 위해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훌륭한 대화의 방법입니다.

When God asks Adam and Eve, "where are you?" Is it really because He did not know? It was for Adam and Eve, so they would realize where and what they were doing: hiding from God.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디 있느냐?" 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이 어디있는지 모르셨을까요? 이 질문은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하나님으로 부터 숨어있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So God asked Moses, what is in your hand? Moses responded, "A Staff" and God says throw it into the ground. This is where we really need to ponder what this Staff means, why God told Moses to put it in the ground. This staff actually represents many things, but at this point in Moses life, it represents three important things.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나? 모세가 "지팡이" 라고 대답하자, 하나님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지팡이가 가진 의미와,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말씀 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팡이는 실제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1. It represented that he was a shepherd. He once was the prince of Egypt, but now a shepherd, what he believed he was, his identity; God tells him to let go and put it in the ground.

그것은 모세가 목자임을 나타 냅니다. 그는 한 때는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지금은 목자입니다. 그는 양을 치는 목자가 바로 지금 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2. That is how he made a living. From Prince, where he told people what to do and had many riches; to a shepherd that was known as the lowest paying position during that time, his income, his salary, his job; was told to let go and put it the ground.

그것이 그의 밥벌이였습니다. 그 전에는 왕자로서, 백성들에게 명령과 지시를 하며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최저 임금을 받는 직업으로 알려진 목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3. The staff represents influence, authority, and power. Kings and rulers had staffs, where they would use to lead and influence their nations. Shepherds have staffs to guide and use to lead sheep. Influence and authority are using that power to guide people or sheep from point A to point B. That, too, God tells Moses to let go, and put it in the ground.

지팡이는 영향력과 권력을 의미합니다. 왕들과 통치자들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고 나라를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목자는 지팡이로 양을 인도하고 다스립니다. 영향력과 권력이 있으면 누군가를 A 에서 B 로 인도하기 위해 그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힘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버리라고 지시하셨습니다.

At that very moment, when Moses let it go, it turned into a snake to reveal to Moses who God was. That very staff that Moses let go, God took and led and became signs for miracles. The Bible continues to mention that staff when God begins to do his work. It is the staff that Moses holds that reveals God's glory in the plagues, splits the sea, strikes the rock for water, and guides the Israelites to the Promised Land.

모세가 그것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 주기 위하여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합니다. 모세가 버린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 이끌고 인도하는 기적의 도구가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그 지팡이를 계속해서 이야기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바다를 나누며, 물로 바위를 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안내하는 것은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였습니다.

Moses, by letting go of the staff which represented human identity, his human income, and human influence, God takes it and performs many signs and wonders with it. Beyond culture and the people of those times, for the future of Israel, Moses knew the God of Israel was the God who indeed was alive, and God would be the one to lead him and the people from slavery to freedom, to the promised land that wasn't seen yet, from hopelessness to a new life. 모세는 인간의 정체성, 인간의 경제력, 인간의 영향력을 대표하는 지팡이를 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용하여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십니다. 문화와 그 시대의 사람들을 뛰어 넘어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모세와 백성들을 노예에서 자유로, 아직 보지 못한 약속의 땅으로, 그리고 절망에서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줄 것을 알았습니다.

Moses and the people entered into the desert for 40 years, but if you go to that desert, it could have been traveled across in less than 40 days. Exodus 13:17-18 shares "When Pharaoh let the people go, God did not lead them on the road through the Philistine country, though that was shorter. For God said, "If they face war, they might change their minds and return to Egypt. The Israelites were around nearly two million people, counting women and children who departed Egypt. Israel were partially armed, but not prepared to battle.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 년 동안 사막에서 헤맸지만, 사실 실제로 여행을 해보게 되면 40 일도 걸리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3 장 17-18 절을 보면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와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거의 2 백만명이나 되었습니다. 몇몇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기가 있었지만 싸울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God led them, "By day the Lord went ahead of them in a pillar of cloud to guide them on their way and by night in a pillar of fire to give them light, so that they could travel by day or night. Neither the pillar of cloud by day nor the pillar of fire by night left its place in front of the people," (Exodus 13:21-22).

하나님께서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 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 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을 떠나지 않았다. "(출 13:21-22).

The Israelites felt safe and secure with God leading them. During the 40 years, God had plans for His people.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에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40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The laws of geometry teach us that the shortest distance between two points is a straight line. The Israelites perhaps wouldn't have taken them 40 years to arrive at the Promised Land if they did prepare themselves and did not desire to go back to Egypt. It seems, however, that God had other plans for their ancestors.

두 지점 사이의 가장 짧은 거리는 직선 거리입니다. 미리 철저히 준비를 하고 출발했다면, 분명히 약속의 땅에 도착하기까지 40 년이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Why does God feel the need to have the Israelites wander aimlessly rather than proceed directly to their destination? You would think that in fleeing from the enemy, in hot pursuit of freedom, they would want to reach

safety as soon as possible. Obviously, the straight road is preferred yet, what the Bible points out is that God's road is not an obvious route of freedom and a humanly measured and planned path to the promised land.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로 빨리 가게 하지 않고 오래 걸리게 하셨을까요? 가능하면 적들에게서 빨리 자유를 찾아 안전한 곳에 도착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직선길을 선택하겠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길은 우리 눈에 분명히 보이는 자유의 길이나 인간이 계획한 길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Journeys like these in the Bible speaks about people's challenges with anxiety and uncertainty. Going into places of the fear of the unknown. Israelites as they saw the challenges that would arise while wandering in the desert, they preferred to return to Egypt, where, although enslaved, they at least felt a certain degree of consistency, security in their lives, a familiar routine.

이런 여행은 사람들을 걱정과 염려 속으로 몰아 넣습니다.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공포의 장소로 들어갈 때 특히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노예로 살더라도, 안전하고 익숙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This is a struggle that many people face and so are reluctant to try something new, to veer off into uncharted territory, to stray from our comfort zones, all at the risk of traveling a path that is less familiar or comfortable. 이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살던 편안한 삶이나 익숙한 것을 벗어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 합니다.

As people were complaining and wandering, if they were a ministry, many people during that time might have seen them as a failed ministry. Moses followed and obeyed God, whether he knew where he was going or not. What seemed obvious to them, was not the way God wanted them to go. Moses followed this. Even though Moses might have seen that the people basically had no hope, Moses was really humble, and at the same time, hopeful of where God was leading the people of Israel in the lowest times of their lives.

그렇게 사람들이 불평하고 방황할 때, 그것을 사역의 관점에서 보면,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실패한 사역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때도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에게 확실하게 보이는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갔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희망을 잃어 버렸을 때도 모세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절망하고 있을 때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When the time came when his people were there in front of the promised land, with the structure, law and everything he had put into, Moses was not allowed to enter. Moses was not allowed to enter because he disobeyed God. In Numbers 20:1-13, God commands him to speak to the rock, but instead Moses strikes the rock, twice, with the staff and takes credit for it. Before this in Exodus 17, there was a similar incident when God tells Moses to strike the rock for water. But this time, Moses is told to speak to the rock and instead strikes it twice.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것이 준비된 약속의 땅 앞에 왔을 때 모세는 사실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0 장 1 ~ 13 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위에 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는 대신 두 번이나 바위를 지팡이로 치고 맙니다. 그 이전에 출애굽기 17 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이 나오게 바위를 치라고 말씀하신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모세는 바위에게 말하라고 명령을 받았고,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 He depends on the staff rather than God. Even though God has done miracles with the staff, he does not hear God but relies on the staff, which is a mere stick.

모세는 하나님보다 지팡이에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지팡이로 기적을 행하셨지만 모세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막대기에 불과한 지팡이에 의지한 것입니다.

2. This speaks of the culture, habit and tradition of what Moses was used to. Before this, everything he did was successful, so he trusted that this would be the same, and just went ahead and tried it twice when God specifically told him to speak to it.

이것은 모세가 익숙했던 문화와 습관에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그가 했던 모든 일이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은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3. It shows there is a higher accountability towards leaders, especially Moses here, but it also shows that Moses took credit for the water, even though from the beginning it was God. Since the Bible states it twice, it shows Moses was relying on his own strength and what he is used to, which showed he did not listen to God. Because of these various reasons God does not allow Moses to go into the promised land.

지도자들, 특히 여기 모세에 대한 더 높은 책임이 있음을 보여 줍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이 한 일처럼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두 번이나 이야기 합니다. 모세가 자신의 힘이나 익숙한 것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Moses tried to make every excuse not to go to Egypt to free the people before, and Moses could've resisted, he could have felt like he deserved to enter the promised land, he could even probably come up with a good reason to go, but Moses takes responsibility, he obeys, and gives his position to Joshua, the next generation leader. He sacrificed. He poured out his everything to the ministry of the people that seemed hopeless, wandering, and when he can even taste the fruits of what he has done thus far, he comes to terms with it and surrenders and gives and passes it to the next generation, even though he was not able to go to the promised land and he was not able to see the future. The future was unknown, and at his current state even hopeless, but Moses trusted in God.

모세는 모든 핑계를 대서 애굽에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가 하기 싫어했던 일을 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만 한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지고 차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권력을 넘겨줍니다. 그는 희생했습니다. 그는 희망이 없이 떠돌아 다니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이제서야 자신이 한 일의 열매를 맛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음 세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넘겨주기로 합니다. 비록 약속의 땅에 갈 수 없었지만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Verse 7 and 8 states "Then Moses summoned Joshua and said to him in the presence of all Israel, "Be strong and courageous, the LORD himself goes before you and will be with you; he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Do not be afraid; do not be discouraged."

신명기 30 장 7 절과 8 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마음을 강하게하고 용기를 내시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서 가시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두려워 하지도 말고 겁내 지도 마시오"

Who do we turn to? Who do we ask for help? What can we do for the next generation?

우리는 누구에게로 향합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우리는 차세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1. We have to let go of our own staffs, our identity, income and influence that we are so proud of or that we lean on, and allow God to take over our lives, our minds and hearts. I hear all the time, Pastor, I know it in my head, but it is so hard to change our lives to what I know.
우리는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의지하는 지팡이, 정체성, 경제력, 그리고 영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해야합니다. 저는 항상 이런 말을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2. The path of God is not always obvious, so we have to let go of all our paths, future, the unknown, all before Jesus. We can become controlling because in the gut of our being, there is a fear and anxiety of not knowing; which when

we are in control, we feel we can control the future and the outcomes. God gives us choices to make wise decisions, but He does not give us the power to determine the consequences of our decisions. The future is always unknown, so we need to know God is good, God is in control, God wants what is best for us, and need to give it unto Him. 하나님의 길이 항상 분명하게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길, 미래, 알려지지 않은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 놓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 모르는 일에 대해 빨리 안정감을 가지고 싶어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빨리 조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조종할 수 있게 되면 미래와 결과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시지만, 우리에게 어떤 일의 결과를 결정할 힘은 주지 않습니다. 미래는 항상 모르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며 항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The two things I hear these days is that there is no hope in the church because (1) it is diminishing, especially the Korean American Church because something like 98% of young Korean American people have left the church; and (2) It is only filled with the elderly. 제가 요즘에 많이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에서 청년들의 98% 가 떠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노인들만 교회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But let's have some confidence in God. Like Moses we might fall into the trap of the wilderness and culture we are in. God always used people and circumstances that seemed hopeless in the Bible, and used them to humble the prideful to bring God glory and give all credit to God.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광야와 문화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역사하시고,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So what if there is only the elderly? (1) In today's context, who uses the staff? The elderly. That staff can be the staff that God uses to lead his church. (2) The elderly sometimes say that they can only pray, they are so sorry, and that's all they can offer. I say, "Sorry?" Prayer is a powerful thing. I feel my grandparents and parents praying for me. My friend lost his praying grandmother, and he said he felt like he lost a spiritual power behind him. Prayer is never a last line of defense, but it is our first line of offense! If the elderly TRULY pray like they take their medicine and vitamins because their life depends on it, it will definitely transform the church under God's plan.(3) Acts 2: 17-21 says "In the last days, God says, I will pour out my Spirit on all people. Your sons and daughters will prophesy, your young men will see visions, your old men will dream dreams. Even on my servants, both men and women, I will pour out my Spirit in those days, and they will prophesy. I will show wonders in the heavens above and signs on the earth below, blood and fire and billows of smoke. The sun will be turned to darkness and the moon to blood before the coming of the great and glorious day of the Lord. And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AMEN.

그렇다면 노인들만 있다면 어떻습니까? (1) 요즘에 누가 지팡이를 씌니까? 노인들이지요.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이끌기 위해 여전히 쓰십니다. (2) 나이 많으신 분들이 가끔, 기도하는 것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전부라고 하시며 미안하시다고 합니다. 미안하다고요?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부모님이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제 친구는 자기를 위해 기도하시던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를 항상 영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진 것처럼 느꼈다고 합니다. 기도는 마지막에 하는 방어가 아니라, 미리하는 공격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건강에 꼭 필요한 비타민을 먹는 것처럼 기도를 하신다면, 그 기도는 교회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3) 사도행전 2 장 17-21 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We need elderly who will begin dreaming! Martin Luther King Jr. made the famous “I have a dream” speech. One of the dreams was that white kids and black kids would eat at the same table. He had a dream!

우리에게는 꿈을 꾸는 노인들이 필요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 꿈 중에 하나는, 백인 어린이와 흑인 어린이가 한 식탁에서 식사하는 것이었지요. 그는 꿈이 있었습니다.

What are some of the dreams of our elderly? Besides political differences, our Korean American Elderly want to see North and South Korea unified with peace and freedom. They want their children, the 2nd and 3rd generation to come to church and know God. They want churches to be filled with young people! Acts 2 is after Jesus’ days, and the elderly need to begin dreaming! Dream big, pray, and put all of our trust on God.

우리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유와 평화의 통일을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 그리고 2 세, 3 세들이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젊은이들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 장은 예수님 다음의 일을 말하고 있는데, 노인들은 꿈을 꾸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야 합니다.

Korean American young people making a silent exodus has been the topic for a long time now. Hansen’s Law talks about immigrant families, in that what the second generation rejected with language and culture, the third generation desires it back. There are Korean Russians that I encountered who desired to know their Korean roots again. I see Korean American young families, desiring to come back to the Korean American church so that their children can learn Korean and Korean culture, and more will desire for them to know their roots as Korean Americans. Already shifts and changes are happening. But is this it? Is this our new challenge?

미국의 한인 청년들이 조용히 교회를 떠나는 것은 오래전부터 있던 일이었습니다. 한센법칙이 이야기 하는 것은, 이민 2 세대들은 부모의 언어와 문화를 버리지만, 이민 3 세대에서는 그것을 다시 찾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인의 뿌리를 배우려고 하는 러시아의 한인 이민자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한인교회로 돌아와서 한국 문화와 그들의 뿌리를 배우려고 하는 한인 청년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전부인가요?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일인가요?

Maybe we need to confess and take responsibility like Moses did and humbly and obediently give and support the “hopeless” next generation with hope and sacrifice. Maybe we haven’t put the top priority the highest priority. Maybe we put money, education, and the American dream higher at the expense of getting lost in translation the importance of saying I love you, and even worse, not knowing God. There is a statistic out there that well-meaning parents are the reason students are leaving God in college because parents, when it came to school, it was non-negotiable, but when it came to church or family worship, they let that one slide.

우리도 모세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겸손히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희망 없는 것처럼 보이는’ 차세대들을 희망과 희생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을 소홀히 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표현이나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돈과 교육과 American dream 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청년들이 대학을 간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 중에, 자식을 꿈쩍하게 생각하는 부모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자식들의 공부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지만, 교회나 가정 예배에서는 쉽게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What is the one thing you want your children to know, if God forbid, something might happen to you? If you were to die today, what is the one thing you want for your children? For me, it is the very education that even though I might die and go ahead first, it’s that if they know God, and God is with them, that God loves them, that is enough and that beats any other thing compared to anything in this world. That is the very foundation, the very best education they can have, that if even though I am not with them, but that they know God is with them, that is good enough for me. Isn’t that the best thing we can leave behind?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한가지만 확실히 남기고 싶다면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오늘 죽게 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한가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만일 오늘 죽게 된다면, 저는 제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제 아이들을 사랑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말해줄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고 삶을 가장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내 아이들과 함께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 아이들과 함께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녀에게 남길 가장 좋은 유산이 아닌가요?

Moses says to the next generation “Be strong and courageous, the LORD himself goes before you and will be with you; he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Do not be afraid; do not be discouraged.”

모세는 차세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너희 앞서 가시고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두려워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There is an African proverb which says, “A man plants a tree under whose shade he will not sit.” The understanding is that, man plants a tree which they will not see for many years to come, but it is their children, the future generation, that will be able to see it and enjoy.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심고서 그 그늘에 앉을 수 없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람이 나무를 심어도 그 나무가 바로 자라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무가 그늘이 생기려면 세월이 많이 흘러야 하지요. 하지만 그것을 미래에 즐기게 될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와 차세대입니다.

There is a Cathedral in Washington DC, called the National Cathedral. It is the sixth-largest cathedral in the world, the second-largest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highest as well as the fourth-tallest structure in Washington, D.C. In 2009, nearly 400,000 visitors toured the structure. Average attendance at Sunday services in 2009 was 1,667, the highest of all domestic parishes in the Episcopal Church that year.

와싱턴 D.C.에 National Cathedral 이라는 성당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여섯번째 큰 성당이고, 미국에서는 둘째이며, 와싱턴에서는 네번째로 높은 건물입니다. 2009년에는 40 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갔고, 그 해에 평균 예배 참석자는 미국 전체 성공회 교회중 가장 많은 1,667 명이었지요.

But the design and vision to build that cathedral was in 1792. Pierre L’Enfant created the “Plan of the Federal City”; set aside land for a “great church for national purposes.” The Plan started in 1792, through various meetings in 1891 and 1893, the building block started to be built in 1907. They kept building knowing that they would not see the finished product. They sacrificed, not for their own glory and benefit, but for the best interest of the next generation. The building was finished in 1990. The people and presidents, who saw the first stone were not able to see the finished product. But they continued to do so for the sake of the next generation.

그 성당을 짓기 위한 비전과 디자인은 179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뻬에르 랑팡이 Federal City 에 ‘국가적인 목적을 위한 위대한 교회’를 위한 땅을 마련했지요. 계획은 1792년에 시작되었지만 1891년과 1893년의 여러 회의를 거쳐서 1907년이 되어서야 공사가 시작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완성된 빌딩을 보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공사를 계속 했습니다. 자신들의 영광과 축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차세대들을 위한 것이었지요. 빌딩은 1990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첫 돌을 놓은 사람들과 대통령들은 완성된 건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차세대를 위해 일을 계속했습니다.

Moses did this, after all he had sacrificed, after all that he saw and did, he was not able to see the finished product. But because of God’s given humility, sacrifice, obedience, and hope, Moses blesses them to their path that Joshua then leads to the promised land.

모세가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많은 희생을 하고 일을 했지만, 완성된 결과를 보지는 못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겸손, 희생, 순종과 소망을 가지고, 모세는 차세대를 축복했으며 여호수아는 그 축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So, what does it mean to live a life for the next generation? It is definitely something we can do only through God’s power. It is definitely hard. It is definitely sacrificial.

그러면 차세대를 위해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아주 어렵고, 또 분명 희생이 따르는 일입니다.

The ultimate role model was Jesus Christ for us all. If we see what he has done for us, if we have tasted and seen what can be for the next generation when we lay our lives down for them, we can see what was a hopeless future with HOPE. The sacrifice is all worth it. Like a mother giving birth to a child, which I will never be able to experience but I saw from the side, I hear that all the pain and suffering gets forgotten when you see the life of the child. It doesn't stop there, we take care of that child, and the Bible always highlights a life and the power of the mother's prayer, and that, that is one powerful tool for our next generation.

우리에게 가장 좋은 role model 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알고, 우리가 차세대를 위해 우리 삶을 바칠 때에, 절망적인 미래를 희망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희생은 분명한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지는 못하겠지만, 산모가 새로 태어난 애기를 볼 때,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잊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기를 돌보고 키우는데 엄마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 차세대를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So, by laying our staff before Christ, not depending on the obvious path, but dreaming dreams through true humility and obedience, we trust and believe it will be so worth it by the power of God and that God gets all the glory.

그래서, 우리의 지팡이를 예수님 앞에 내려 놓고, 익숙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온전한 겸손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꿈을 꿀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될 것을 믿습니다.

My prayer for our children, for our community, and for our church, is that we become people who truly lay our lives down for our next generation even if they seem hopeless, seem far from done, seem so lost and crazy these days in this culture and society. We seek and ask God for our purpose in all of this. Even when they may seem like failure, or our own failures of not teaching them right, when we feel discouraged and defeated, let's be reminded of what Moses told the next generation.

저는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차세대들이 이 시대와 문화 속에서 약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방향을 잃고 정신이 혼란스러워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삶을 바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실패자처럼 보이거나, 우리가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실패한 것 같더라도, 우리가 진 것 같고 실망이 돌 때에도, 모세가 차세대에게 한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Be strong and courageous, the LORD himself goes before you and will be with you; he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Do not be afraid; do not be discouraged.”

“강하고 담대하라. 주께서 너희 앞서 가시며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가 결코 너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치 말라”

Trust that God will be with you and the next generation. Trust God. Believe in that. Pray for the Next Generation. Pray with Confidence. Celebrate what God is doing now and will continue to do. We thank God, who is our hope, our savior, our sacrifice, our everything. His promises are fulfilled. God is faithful. God is good, God is in control, God desires great things for us and the next generation. So, we dedicate and lift up our next generation to you God.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차세대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차세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과 앞으로 계속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소망, 주님, 희생 그리고 모든 것 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좋으시며,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차세대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차세대를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